

|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

한 줌의 쌀 예수님 몫으로



“희망의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아이들의 미소는 참 해맑습니다. 비록 낡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헌미헌금 봉헌은 내게 필요 없거나 남는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귀한 것이라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희생이 따르는 나눔의 봉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더 멀리 더 깊이 더 섬세히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세상을 위한 헌미헌금 봉헌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깜뽕꼬유치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래이 어린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구촌 빈곤국가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8개국 21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들이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미헌금 봉헌의 달'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02)727-2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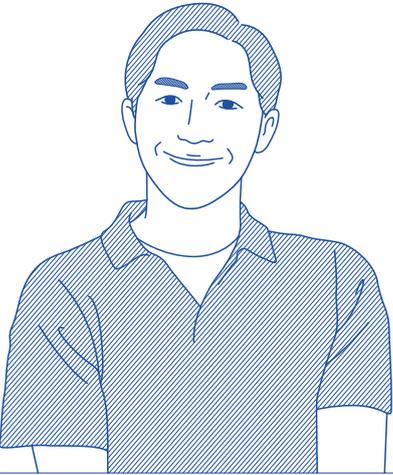
ARS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헌미헌금 봉헌의 달
관련 영상 보기

재능을 기부하면 더 많은 이가 행복해집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7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성은 아고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쫓겨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적, 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체성사로 초대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14,16)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번역, 통역 등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이성은(아고보)씨입니다. 그는 2009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요청한 지구시민교육 자료 번역에 재능을 기부했고, 이후에도 언제든 통역, 번역 일이 생기면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의 100일 잔치 비용을 기부(생애첫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함께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잘하는 것을 나누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인 이성은씨에게 나눔은 익숙한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그걸 아껴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쓰지 않는 것을 모아 팔아서 기부하는 것, 소액기부도 활성화 돼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성은씨는 한국에서의 나눔은 다소 의무적이고

강요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액기부보다는 금액이 크면 좋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유독 한국에서는 소액기부 보다는 유명인들의 고액기부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이목을 끄니다.

“한번은 제가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께 10만 원을 드리면서 기부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10만 원은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만큼 캐나다는 소액으로 기부하는 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기부부터 합니다.” 이성은씨는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갈비뼈의 살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원래 받은 것은 110인데 100은 자신이 갖고 남은 10은 그분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 신자인 아내와 함께 월급 10% 이상을 교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면 안되듯이 나눔도 기복 나눔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복 나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만 나눌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은씨의 꿈은 아내와 함께 해외선교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공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곳에 건축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선교가 아닐까요. 물질, 자신의 능력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해외선교를 꿈꾸는 아내와 함께 저희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은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세상을 만들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65일 나눔실천 운동입니다.

신청방법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774-3488

본부의 후원자가 되시면

01 후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신청 완료 후 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내용을 발송해 드립니다.

02 후원금 사용자 및 본부 소식을 담은 ‘한마음한몸 계간지’를 분기별로 발송해 드립니다.

03 본부에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후원자에게 한해 발급됩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에 자살로 39.5명 사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는
본당 자살예방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위기전화 및 면접상담, 자살유가족을
위한 피정 및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보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자살의 위기로 힘들어 하는 당신께, 그리고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

전화상담
1599-3079
(월~금, 10시~17시)

면접상담
02) 318-3079
(월~금, 10시~16시)

대상 우울하고 슬픈 기분, 부정적인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즐거움 감퇴, 체중의 갑작스런 증가나 감소, 불면증 혹은 수면과다, 무가치감,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심리적 증상으로 힘들신 분
상담비 무료/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 결정 (주 1회 50분)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자살예방센터(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자살 위기에 처한 이웃, 내가 발견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17년도 하반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생 모집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사전적으로 '문지기'를 뜻합니다.
즉, 자살위기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을 통해 조기에
자살위기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발견하여 전문가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4:00~17:00 / 30명 2017년 10월 21일(토) 09:00~12:00 / 30명 2017년 10월 27일(금) 14:00~17:00 / 30명
신청기간	2017년 9월 18일(월)부터 선착순 접수
대상	자살예방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문의사항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승예린(02-318-3079)

※ 교육신청방법 및 관련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3079.or.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